



■ 월드컵 소식

설기현 프리미어리그 '레딩' 입단 위해 출국

'꿈의 축구 무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게 된 '스나이퍼' 설기현(27)이 9일 출국했다. 설기현은 기존 구단인 잉글랜드 챔피언스(2부) 울버햄프턴과 자신의 이적에 합의한 프리미어리그 레딩FC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이날 낮 1시35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항공 KE905편으로 영국으로 출국했다. 설기현은 영국에 도착하면 일단 울버햄프턴에 들러 짐을 정리한 뒤 레딩으로 넘어가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계약서에 정식으로 사인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레딩 구단에서 동료들과 함

께 2006-2007 시즌을 대비해 훈련을 할 예정이며 내달 3일에는 전지훈련 일정도 잡혀 있다. 설기현은 "아직 메디컬 테스트가 남아있고 정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이적이) 확실하지 않다. 일단 영국에 도착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워 했다. 하지만 울버햄프턴과 레딩FC가 일단 이적이 합의했기 때문에 설기현은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토트넘 핫스파)에 이어 한국 축구선수로는 세번째 프리미어리거가 될 가능성이 큰 상태다.

FIFA, 지단·피구 등 올스타 23인 선정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정한 2006 독일월드컵축구대회 올스타 23인이 발표됐다. 8일(한국시간) 독일월드컵축구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FIFA 테크니컬스태프(TSG)가 선정한 '마스터 카드 올스타팀'에는 이탈리아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이 각각 4명, 아르헨티나 2명, 브라질, 잉글랜드 선수가 각각 1명씩 포진했다. 그러나 월드컵 개인통산 최다골 신기록(15골)을 세운 브라질의 호나우두는 명단에 들지 못했다. 신실된 최우수 신인상을 받은 루카스 포돌스키(독일)도 제외됐다. 또 올스타팀이 8강에 진출한 7개 나라 선수에 한정돼 있는데다 유럽, 남미 외에 다른 대륙 팀에서는 단 한 명도 뽑지 않아 극도로 편중된 올스타 선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다음은 FIFA 23인 올스타 명단. △GK=간루이지 부폰(이탈리아) 엔스 레만(독일) 히카르두(포르투갈) △DF= 로베르트 아얄라(아르헨티나) 존 테리(잉글랜드) 필리앙 튀앙(프랑스) 필리프 람(독일) 파비오 칸나바로(이탈리아) 잔루카 캄보리아(이탈리아) 히카르두 카르발류(포르투갈) △MF=제호 베르투(브라질) 파트리크 비에라(프랑스) 지네딘 지단(프랑스) 미하엘 발라크(독일) 안드레아 피롤로(이탈리아) 젤나로 가투소(이탈리아) 루이스 피구(포르투갈) 마니시(포르투갈) △FW= 에르난 크레스포(아르헨티나) 티에리 앙리(프랑스) 미로슬라프 클로제(독일) 프란체스코 토티(이탈리아) 루카 토니(이탈리아)



웨인 루니(왼쪽)가 포르투갈의 수비수 히카르두 카르발류의 급소를 밟는 반칙을 저지른 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오른쪽)가 주심에게 얘기하자 화난 표정으로 호날두의 어깨를 세게 밀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호날두 "잉글랜드 떠나고 싶다"

포르투갈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클럽팀 동료의 반칙을 심판에게 일러 바쳤다는 구설수를 견디지 못하고 소속 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호날두는 9일 오전(한국시간) 개최국 독일과 3-4위 결정전을 마친 뒤 자국 SIC 방송과 인터뷰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는 아무도 해치지 않았는데 (팬들이) 나에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나를 원하지 않는 잉글랜드에서 살기는 쉽지 않다. 2-3일 뒤에 잉글랜드

로 떠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날두는 잉글랜드와 8강전(포르투갈 승부차기 승)에서 맨유 동료인 웨인 루니가 포르투갈 수비수 히카르두 카르발류의 급소를 밟는 반칙을 저지르자 주심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얘기했고, 루니는 이에 화가 치민 표정으로 호날두의 어깨를 세게 밀쳐냈다. 한편 국제축구연맹(FIFA)은 8강전 잉글랜드-포르투갈 경기에서 비인사적인 반칙을 한 루니에게 국제경기 2경기 출장금지에 벌금 5천 스위스프랑(약 38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클린스만 감독 "거취문제 시간 좀 달라"

비난을 찬사로 단번에 바꿔놓은 '전차 군단'의 영웅 위르겐 클린스만(42) 독일 축구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 신중한 입장을 계속 이어갔다. 클린스만 감독은 9일 오전(한국시간) 슈투트가르트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06 독일 월드컵축구대회 3-4위전에서 포르투갈을 3-1로 꺾고 3위를 차지한 뒤 기자회견에서 계약 연장 의사를 묻는

질문에 "지난 몇 주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 며칠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것이 팀과 작별은 아니다. 나는 대표팀 발전의 한 부분을 맡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룬 모든 것들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 말로 묘한 여유를 남기기도 했다.

정영일 110만달러... LA 에인절스와 계약

〈진흥고〉

어제 정식 입단 조인식 가져

'고교 탐삼진왕' 정영일(진흥고·3년·18)이 미국행을 택했다. 정영일은 9일 오후 5시 광주 서구 마스터스 호텔에서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소속의 LA 에인절스와 입단계약금 110만 달러(약 10억 3000만원) 선에서 합의하고 정식 입단 조인식을 가졌다. LA 에인절스 극동담당지역 스카우트 팀장인 클레이 다니엘은 "지난 2년동안 정영일을 꾸준히 관찰했는데 4종류의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특히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결정구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스카우트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WBC를 통해 한국 야구의 위력을 느꼈고 이번 스카우트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서 "올해 우리 구단이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한국계 포수 최현과도

잘 맞는 공감이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에인절스는 6월 신인 드래프트에서 한국계 포수 최현을 1라운드에서 지명, 입단시킨 구단이다. 정영일과 최현이 18세로 같은 나이인 데다 정영일이 미국에 건너가는 내년과 같은 수준의 마이너리그에서 출발한다면 배터리를 이뤄 메이저리그에서 함께 뛰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m88cm, 96kg의 체구에 최고 구속 151km의 빠른 공을 자랑하는 정영일은 지난 4월 대통령배 고교야구에서 한국 야구사에 남을 1경기 최다 탐삼진 신기록(23개)을 세우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제2의 김진우'라는 평가를 받으며 스카우트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편 지난 6월 정영일을 2007년 신인 1차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한국계 포수 최현과도



정영일이 9일 오후 5시 광주 서구 마스터스 호텔에서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소속의 LA 에인절스와 입단계약금 110만 달러에 입단 조인식을 가졌다. /워치코리아 기자 jrwi@kwangju.co.kr

에 옵션을 통해 7억원선까지 맞춰주겠다는 계약을 10억원을 요구했고, KIA는 4억원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몸값 일방적 책정 등 안일한 대응 불쾌"

■ 정영일 왜 미국행 택했나

지난 6월 KIA에 1차 지명됐던 '고교 닥터' 정영일의 갑작스런 미국행을 놓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올해 고교를 졸업하는 정영일의 미국행은 군대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점에서 다소의 외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미국 진출 후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30명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가운데 아메리칸 드림을 거둔 선수는 박찬호와 김병현 정도다.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어려운 곳이 메이저리그 무대다. 다음은 경제적인 현실. 계약금 110만달러 중 세금 등 부대비용까지 빼고나면 손에 쥌 수 있는 돈은 45만달러(약 5억 5천만원) 정도다. 이마저도 2년동안 나눠서 받게 된다. 차라리 KIA측에서 막판 협상카드로 제시한 7억원을 받고 국내 구단에 입단하는 게 금전적으로는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도 할 수 있다. 병역문제도 숙제다. 한국에서 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등 실력만 갖추면 합법적으로 병역 특례를 받을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한다면 국제대회 출전은 쉽지 않다. 또 실패했을 경우 복귀도 어렵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같은 어려움은 정영일과 그의 부모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영일이 미국행을 선택한 데는 KIA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에인절스 구단이 적극적인 협상에 나섰기 때문이다. 사실 정영일측은 한기주 정도의 몸값을 기대했지만 KIA는 당초 4억원의 액수를 제시했다. 정영일측으로선 턱없이 모자라는 몸값에 실망했고 110만달러를 제시한 에인절스 구단에 호의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정영일측과 KIA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적인 자존심 싸움도 겹쳤다. 정영일의 아버지 정중호씨는 그동안 주변 지인들에게 "KIA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액수를 들이대는 것이 불쾌했다. 제대로 된 대우라면 합한 외국행을 왜 택하겠는가"라고 하소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9일 정영일의 LA에인절스 입단 계약식 후에도 정씨는 "1차 지명을 해준 KIA에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전제한 뒤 "KIA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서운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결국 KIA측이 너무 느긋하게 협상에 임하다 뒷통수를 맞았다는 말이 된다. KIA로서는 스카우트팀의 아마추어적 대응 방식이 아쉬운 대목이다. KIA는 정영일의 이탈로 올해 1차 신인 지명권도 공중분해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매년 10승 투수 되겠다"

■ 정영일 일문일답 메이저리그 도전을 위해 미국행을 선택한 정영일은 9일 입단 조인식에서 "미국서 매년 10승 이상을 거두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메이저리그 진출 소감은. ▲큰 무대에서 뛰게 돼 기쁘다. 2007년도 신인 1차 지명을 해준 KIA에게는 미안하다. -다른 메이저리그 구단과도 접촉했다는 말이 있는데. ▲원래 LA 에인절스와 뉴욕 양키스, 뉴욕 메츠, 보스턴 레드삭스 등이 말이 있었다. 이 가운데 LA 에인절스와 뉴욕 양키스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 -올해 들어 불을 많이 던져 흑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제는 괜찮은가. ▲정말 괜찮다. 던지면 던질수록 좋아지는 걸 느낀다. 불에 안정감이 생기고 컨트롤도 좋아지고 불꽃이 에리해지는 것 같다. -KIA에 가고 싶지는 않나. ▲가고 싶었고 마음의 갈등도 많이 했다. 자주 전화를 주고 받는 김진우 선배도 성공할 자신이 없으면 KIA로 오라고 했다. 그러나 비슷한 조건이면 보다 큰 무대인 미국에서 뛰고 싶었다. -앞으로 목표는. ▲2,3년 정도 마이너리그에서 경험을 쌓은 뒤 메이저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다. 매년 10승 이상을 올리는 투수가 되는 게 최종 목표다. 박찬호 선배도 뛰어 넣고 싶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국내 최고 '몸짱' 김명훈(35·광주시청)이 올해 최고 몸짱으로 뽑혔다. 보디빌딩 국가대표 김명훈은 9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2006년 미스터&미스코리아신발대회에서 아름다운 근육을 뽐내며 미스터코리아에 선발됐다. 남자 일반부 90kg 이하급 우승자 김명훈은 이날 각 체급별 챔피언 9명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경합 끝에 영예를 안았다. 또 여자 일반부 55kg 이하급 우승자 강혜영(35·아시아월드짐)은 미즈코리아로 선발됐다.

이승엽 전구단 상대 홈런

히로시마전서 27호... 팀은 패배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일주일 만에 홈런포를 재가동하며 전반기 30홈런을 향해 방망이를 곧추 세웠으나 팀은 6연패에 빠졌다. 이승엽은 9일 히로시마 시민구장에서 벌어진 일본프로야구 히로시마 도요카프와 방문경기에서 2-3으로 뒤진 9회 선두 타자로 나와 상대 우완투수 요코야마 류지의 높은 직구(143km)를 그대로 잡아 당겨 가운데 펜스를 훌쩍 넘어가는 동점 솔로포를 작렬시켰다. 시즌 27호 대포로 지난 2일 한신전 이후 1주일만에 나온 아치. 이승엽은 한일통산 395회 경기 홈런을 기록하며 2위 무라타 슈이치(요코야마·21개)와 격차를 6개로 벌리고

센트럴리그 홈런 단축 선수를 지켰다. 아울러 이승엽은 이날 히로시마전에서 대포를 날려 일본 11개팀을 상대로 전구단 홈런도 함께 이뤄냈다. 이전 세 타석에서는 유격수 팡볼과 삼진 2개로 물러났다. 시즌 타율은 0.327을 기록했다. 0-3으로 끌려가며 패색이 짙던 요미우리는 조지 아리아스의 투런포와 이승엽의 솔로포로 기사회생했으나 돌아선 말 수비에서 마무리 도우다가 끝내기 안타를 맞고 결승점을 내줘 3-4로 패했다. 6연패한 5위 요미우리는 리그 최하위 요코야마에 쫓기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동강대 16강 올라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

광주 동강대가 제40회 대통령기 전국대학야구대회에서 충청대를 꺾고 16강에 선착했다. 동강대는 9일 서울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첫날 충청대와 경기에서 선발 오민환(한) 등 9명의 투수를 등판시키는 마운트 물랑자전과 안타 9개를 효과적으로 터뜨려

6-3 낙승을 거뒀다. 동강대는 0-0으로 팽팽하던 4회 초 안타 4개를 몰아쳐 3점을 뽑은 뒤 6회에 몸에 맞는 볼 1개와 안타 3개로 3점을 더 달아내고 8, 9회에 각각 2점과 1점만 내줘 충청대의 추격을 뿌리쳤다. 한편 동강대는 송원대학교와 영동대학교 승자와 오는 14일 2회전을 치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